

환생복수서사의 허구적 진실과 소설의 윤리

- 《태평광기》 ‘보응편’을 중심으로 -

강 종 임*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환생복수서사의 허구적 진실 |
| II. 환생을 통한 재회와 복수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규칙이나 관습, 또는 윤리라는 이름으로 그 관계의 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질서라고 불리는 그 관계의 망은 영성하기가 그지없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관계의 망을 벗어난 것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수많은 문학 작품을 비롯하여 영화나 드라마, 혹은 현실 속의 인터넷 기사가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가학, 죽음, 복수, 모욕, 포기 등등의 사건에 연루된 주인공들이 그렇다. 현대 사회에서의 비근한 예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일명 ‘묻지마’ 범죄를 들 수 있다. 그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 관계의 망에 대해 회

* 동국대학교(경주)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의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이 무용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씌워진 사회적 동물이라는 굴레는 그런 회의나 주장으로 깨어질 만큼 허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의 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너머의 또 다른 관계의 망을 상상한다. 사람들은 어이 없는 죽음 앞에 도대체 왜, 그리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어야 했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한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우연들을 그냥 둔다면, 앞서 말한 그 관계의 망조차도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과응보나 윤회, 환생과 같은 불교적 세계관은 참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관계의 망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위의 너무나 많은 그러한 우연을 설명해준다. 그에 따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원인이 내재된 필연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과응보라는 불교적 사유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을 설명해주는 매우 유용한 기제로 작용한다.¹⁾

불교가 중국으로 유입되었던 초창기에, 그것은 윤회를 통한 인과응보로 인간의 관계망을 이해시켜주는 종교였다. 즉 인과응보란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이 모두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의 소치라고 보는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좋은 마음과 선행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마음과 악행은 그만큼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이러한 메커니즘이 잘 운용되기에는 한 번의 생으로서는 다소 짧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윤회이다. 윤회는 기존의 인간관계가 現生에 제한되는 약점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다. 윤회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나게 길고 큰 시공간의 개념을 전제한다. 즉 윤회라는 관념은 인간의 운명이 한 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현세 그리고

1) <미국과학자, 인과응보의 비밀을 발견>, (<https://kr.theepochtimes.com> / 검색일: 2015.11.20.)

내세라는 포괄적인 시공 관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윤회와 인과응보라는 보이지 않는 규율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계관은 어찌 보면 운명론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회복이나 수명의 장단이 三世因果의 輪廻轉生에서 자신이 행한 業의 여하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불교의 교리²⁾는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인 관념이기도 하다. 불교의 교리는 결국 운명이라는 것도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과의 법칙으로 일어나는 윤회’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사후의 세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³⁾ 죽음의 경험과 환생에 대한 소망을 담은 윤회는 인류에게 사후 세계에 대해 끊임없는 호기심과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등장하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마치 현실처럼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다.⁴⁾

물론 다양한 대중문화 속에 발현되는 사후 세계의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경험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상상’을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상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범주의 판타지물 속에서는 이승과 저승이 경계가 없이 서로 이어져 있고, 누군가가 우리의 선악에 대해 심판을 하며,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거기서도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부

2) 김영진, <중국 위진불교의 ‘운명’이해와 인과론>, 《불교학연구》 제34호, 2013, 12쪽.

3) 파드마삼바바, 장홍스 풀어썬, 장순용 옮김, 《티베트사자의 서》, 파주: 김영사, 2014년. 참조)

4) 특히 사후세계 혹은 환생의 이야기를 다룬 미디어콘텐츠 가운데 <49일>, <주군의 태양>,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호텔델루나> 등의 드라마와 웹툰을 영화화한 <신과 함께> 등은 정말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작품들이다. 2017년 중국 대륙을 들쭉였던 <삼생삼세십리도화(三生三世十里桃花)> 역시 신선들의 이야기 속에 환생이라는 기제를 혼합해 놓은 색채의 드라마였다.

여할 수 있다.⁵⁾ 즉 허구의 서사 속에서도 인과와 윤회의 메커니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되돌아보고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들은 허구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본고에서는 중국에 불교가 유입된 초창기에 유행했던 인과설이 반영된 서사 문학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太平廣記·報應》篇에 실린 복수와 관련된 고사[冤報]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태평광기》 권122부터 권125에 걸쳐 수록된 이야기에는 대부분 전생에 맺은 원한과 복수의 염원으로 인해 환생하고, 또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생의 緣起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당면한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이함이 증폭된다. 게다가 등장인물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등장인물 혹은 사건이 실존했던 志怪故事를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에 가미된 환생복수 이야기가 지니는 허구적 서사로서의 역할과 현실 세계 속에서의 의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환생을 통한 재회와 복수

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 작품 속에서 환생 모티프는 주인공이 전생에 누구였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떤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 인과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불교의 윤회설에서 비롯된 환생의 세계관은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사후에 일어날 내세의 삶까지 포함하는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 안에서 운용되는 윤회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서보다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전환되어 현재 진행되

5) 김영진, <《강철비》《신과함께-죄와 벌》《1987》 세 편의 한국영화에 대하여 -상품, 예술, 계몽의 자리>, 《씨네21》, 2018.

는 사건에 비중을 둔다.⁶⁾

그러한 구조 속에서 전생과 현생의 인과에 대한 해명은 결국 작품에서의 갈등 해결이나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 고대 소설 가운데 환생을 통해 복수를 하는 플롯의 출현은 분명 불교 사상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모태가 되는 불교 경전 중에는 사실 복수를 반대하거나 원한을 소멸하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소설에서는 주로 이러한 이야기의 플롯 패턴만 가져오고 원한을 소멸한다는 사상은 흡수하지 않았다.⁷⁾

어쩌면 이는 복수에 관한 고대 중국인의 보편적 관념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父兄과 같은 혈육이나 군주에 대한 孝와 忠이라는 유가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복수에 대한 처연한 다짐과 실행의 사례는 역사 서사나 문학작품들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곧잘 쓰는 ‘군자가 원수를 갚음에 있어서 십 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君子報仇, 十年不晚)’, ‘원한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有仇不報非君子)’, ‘죽어서라도 복수한다(死也要報仇)’라는 말에서 보듯 복수에 대한 집념이나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⁸⁾

《태평광기·보응》편 가운데에서도 특히 〈冤報〉에 실린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중국인의 이러한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예를 들면 부친을 죽인 원수를 죽이고 그 의로움을 인정받아 면죄 받은 아들의 이야기(〈陳義郎〉 권122)는 악행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묘사하고 있다. 또 원한을 가진 사람의 원혼이 복수를 하는 이야기(〈華陽李尉〉 권122)들도 있다. 그것이 무엇에 의한 복수이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모두 악행에 대한 강한 징벌의 의지가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죽어서라도 복수를 한다.’(〈樂生〉 권122)

6) 김낙철, 〈唐 傳奇에 나타난 사후세계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44집, 2019, 12-13쪽.

7) 리핑페이, 〈고대 중국의 ‘복수’ 관념과 그 문학적 표현〉, 《민족문화연구》 제 65호, 2014, 367쪽.

8) 강종임, 〈복수의 당위성과 가려진 고뇌-효에 바탕한 복수서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81집, 2019, 32쪽.

는 이야기에는 강한 怨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념이나 원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 주제는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선악, 시비의 기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還生復讎의 고사를 살펴보면 동물이 사람으로 환생해 복수하는 이야기, 전생의 인과로 인해 상대에게 막연한 증오심을 보인다는 이야기, 원수의 자식으로 환생하여 부모에게 전생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야기, 전생의 부부의 성별이 다음 생에서는 바뀌어서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악한 행위로 인한 업보는 반드시 다음 생에서 받는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본고에서는 전형적인 환생복수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분석하여 환생 모티프가 더해진 허구서사로의 전환과 그 의의를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먼저 〈榭頭師〉의 고사를 들 수 있다. 唐代 張鷟의 필기소설집 《朝野僉載》가 출처인 이 이야기는 《태평광기》 권125에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나라 무제가 한창 바둑에 몰입해 있다가 상대의 바둑돌 한 점을 죽일 준비를 하고 “죽여라”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 말을 들은 사신은 급히 달려 나가 양무제를 알현하기 위해 기다리던 법사 합두사를 죽였다. 바둑을 다 둔 양무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말로 인해 법사가 무고한 죽임을 당한 것을 깨닫고 한탄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신이 양무제에게 법사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을 전한다. 즉 양무제가 전생에 지령이었고, 자신은 밭에서 가래질을 하다 실수로 그 지령이를 죽인 사미승이었으며, 현생에 다시 태어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비교적 짧은 편폭의 이 이야기는 緣起의 모티프가 잘 운용된 전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즉 전생에 맺은 원인으로 현생에서 결과가 초래된다

는 것이다. 특히 사미승이 밭을 갈다 의도치 않게 죽인 지렁이가 윤회하여 현생에 황제가 되었고, 또한 양무제 역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미승의 현생인 합두사를 죽인다는 내용은 ‘의도치 않은 실수’까지도 업보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의 구성에서 절묘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며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은 살생이라도 반드시 업보를 받게 된다는 준엄한 인과율에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지렁이가 윤회를 통해 황제로 환생했다는 내용은 물론 사람들에게 허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신분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었는지 모른다.

중국 남조 梁나라의 武帝 蕭衍(464~549)은 본래 南齊의 관리였으나, 502년에 제나라 和帝로부터 선양을 받아 남양(南梁)을 건립했다. 총명하고 박학하며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 “竟陵八友”⁹⁾ 중의 일인이기도 했다. 문학 및 經史는 물론이고 참위, 점복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정통하였으며, 특히 바둑에는 상당한 고수였다고 전해진다. 양나라 무제는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신하들과 곧잘 바둑을 두곤 했는데 밤새 대국을 두는 몇몇 대신들은 꾸벅꾸벅 졸면서 바둑을 두었다는 일화¹⁰⁾, 그리고 바둑에 몰두하느라 무심코 내뱉은 말로 합두사를 참수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다.

正史에서는 합두사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로 회자되다가 《조야첨재》에 수록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저 작자의 머리 속에서 아무렇게나 엮어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로 하여금 그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의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 역시 허무맹랑한 이

9) 경릉팔우는 王融, 謝朓, 范雲, 任昉, 沈約, 陸倕, 蕭琛, 蕭衍을 가리킨다.(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2008, 161쪽.)

10) 《南史》 卷25: 溉特被武帝賞接, 每與對棋, 從夕達旦. 或復失寢, 加以低睡, 帝詩嘲之曰: “狀若喪家狗, 又似懸風槌.” 當時以爲笑樂. (唐) 李延壽 撰, 《南史》, 北京: 中華書局, 1992, 679쪽.)

야기가 아닌 그렇게 될 개연성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양나라 무제는 만년에 불교에 탐닉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오백 군데가 넘는 도성 안의 절들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다. 승려도 10만여 명이나 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풍요했다.(都下佛寺五百餘所, 窮極宏麗. 僧尼十餘萬, 資産豐沃.)”¹¹⁾고 한다. 이 기록은 양나라 무제의 불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방증해준다. 양나라 무제 자신도 4차레나 출가를 시도하여 절에서 불경을 강해할 정도였으니¹²⁾ 그의 돈독한 불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역사적 기록들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양나라 무제의 평범하지 않은 행동이 어찌면 전생의 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이다.

물론 바둑에 몰입하는 바람에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을 죽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기이하다. 하지만 인과응보에 대한 합두사의 설명은 하나의 기이한 사건을 많은 이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주었다. 합두사의 전생 이야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가 매우 잘 드러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생의 일을 모두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당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당소(?~713)는 당나라 때 中宗, 睿宗, 玄宗 삼대에 걸친 황제를 보좌했던 대신으로 황제에게 조정의 득실에 대해 수차례 충간을 올린 충신이었다.

권125에 수록된 이 이야기에서 조정의 고관을 지내던 그는 李邕이라는

11) 《南史》 卷70 〈循吏·郭祖深傳〉, 앞의 책, 1721쪽.

12) 中大通元年九月癸巳, 輿駕幸同泰寺, 設四部無遮大會, 因捨身, 公卿以下, 以錢一億萬奉贖.(唐] 姚思廉 撰,《梁書》, 北京: 中華書局, 1992, 73쪽.) 大通三年冬十月己酉, 行幸同泰寺, 高祖升法座, 爲四部衆說大般若涅槃經義, 迄于乙卯.(《梁書》 卷3 〈武帝本紀下〉, 앞의 책, 5쪽.) 中大同十一年, 庚戌, 法駕出同泰寺大會, 停省寺, 講金字三慧經.(《梁書》 卷3 〈武帝本紀下〉, 앞의 책, 90쪽.) 太清元年, 三月庚子, 高祖幸同泰寺, 設無遮大會, 捨身, 公卿等以錢一億萬奉贖.(《梁書》 卷3 〈武帝本紀下〉, 앞의 책, 92쪽.)

하급 관리에게 지나칠 정도의 호의를 베풀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를 거론하며 이막에 대한 당소의 지나친 대우를 만류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소는 玄宗의 講武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참수를 당하게 된다. 당소는 죽기 전날에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당소는 전생에 아무개의 딸로 15살에 시집을 갔다. 그런데 그녀의 시어머니는 아주 엄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지시로 밤새 바느질을 해서 옷 한 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옷을 한 마리 개가 망가뜨려 버렸다. 화가 난 당소는 그 개를 가위로 찢러 죽였는데, 이막이 바로 그 개의 환생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열아홉 살에 죽어서 마침내 이 몸으로 태어났고, 지난 생에 나로 인해 죽었던 개가 바로 이막이다. 내일 내가 죽는 것은 인연에 의한 보응일 것이니 날 죽이는 사람도 분명 이막이지 않겠는가? 보응의 이치는 당연한 것이니 놀랄 것 없다.¹³⁾

당대 지괴전기집인 《異雜篇》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당소와 이막의 전생을 묘사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야기의 첫머리는 당소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전생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결국 당대 삼대에 걸친 황제를 보좌했던 당소는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기 자신의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지는 인과의 전말을 간파하고, 또 자신이 당할 참수형의 집행자 역시 누구일지 예견하고 있다. 실존했던 인물의 이러한 범상치 않은 모습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돋울만하다.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에 덧붙여진 역사서에 기록되었다는 내용은 독자들

13) 吾年十九而卒，遂生於此身，往者斃犬，乃今之李邕也。吾明日之死，蓋緣報也。行戮者必是李邕乎？報應蓋理之常，爾無駭焉。(김장환·이민숙 외, 《태평광기》 5, 서울: 학고방, 2001, 748쪽.)

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렇게 믿기 어려울 만큼 신기한 일, 즉 윤희·환생이라는 허구적 서사의 주인공과 관련된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오히려 이야기의 환상성을 더해준다.

《唐書》에는 明皇(현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소를 죽인 것을 후회했고, 또 이막이 참형을 너무 빨리 집행했다고 생각해서 이막을 종신토록 등용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⁴⁾

여기에 언급된 《당서》는 당나라 현종 당시 吳兢 등에 의해 편찬된 역사서이며, 위에서 인용한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新唐書》와 《舊唐書》에도 각각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신당서》와 《구당서》의 〈당소전〉은 《당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¹⁵⁾ 《신당서》에는 당소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현종은 자신의 강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당소에게 화가 나서 금오장군 이막을 불러 당소의 목을 치게 했지만, 곧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당소를 참수한데 대해 매우 후회를 하고서는 이막을 종신토록 등용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 《구당서》의 내용도 역시 대동소이하다.

《태평광기》에 수록되어 있는 당소의 이 고사는 역사서의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허구적인 전생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그 전생의 이야기는 바로 현종이 당소를 황당하게 참수한 내막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14) 《唐書》說, 明皇心悔恨殺紹, 以李邕行戮太疾, 終身不更錄用.(앞의 책, 748쪽.)

15) 李劍國, 《唐五代志怪傳奇敘錄》,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3, 259쪽.

16) 先天二年, 唐玄宗講武驪山, 紹以典儀坐失軍容, 當斬. 帝怒甚, 執于纛下, 左右猶冀少貸, 金吾將軍李邕遽傳詔斬之. 時深咎邕, 帝亦悔, 俄詔罷邕官, 擯于家. ([宋]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2, 4185-4186쪽.) 先天二年冬, 今上講武於驪山, 紹以修儀注不合旨坐斬. 時今上既怒講武失儀, 坐所於纛下, 右金吾將軍李邕遽請宣敕, 遂斬之. 時人既痛惜紹, 而深咎於邕, 尋有敕罷邕官, 遂擯廢終其身. ([後晉] 劉昫 等撰, 《舊唐書》 卷85, 北京: 中華書局, 1992.)

특히 이막이 황제의 명으로 참형을 집행할 때 당소를 단칼에 죽이지 못해서 칼이 부러졌고, 칼을 바꾸어 다시 목을 내리치자 그제야 목숨이 끊어졌다고 묘사한 부분은 당소의 전생담에서 개를 죽일 때 가위의 한 쪽 날이 부러져 다른 한 쪽 날을 써서 두 번이나 찔러 죽였다는 부분과 오버랩된다.

생사의 보응은 진실로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다. 칼이 부러지는 것이나 죽는 것까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진실로 신명이 거짓되지 않구나!¹⁷⁾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다”는 표현은 전생에 지은 어떠한 행위가 그대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인과응보의 규율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으로 젊은 시절 저지른 살인에 대해 현세에서 업보를 받는다는 <李生>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고사는 명나라 때 《初刻拍案驚奇》 卷30 <王大使威行部下, 李參軍冤報生前>으로 개작되기도 했다. 여기에서 이생이 살해한 어린 소년의 환생으로 등장하는 王士眞(759~809)은 실존 인물이다. 그는 당나라의 지방 군벌이었던 成德軍 장군인 王武俊의 맏아들이다. 왕사진은 진중하고 용맹스러우며 결단력도 있어 부친을 잘 보좌했다. 부친이 죽은 후 그 뒤를 이어 성덕절도사에 부임하여 성덕군을 통솔했는데, 順宗이 즉위한 후에는 조정에 귀순했다.¹⁸⁾

이 이야기는 왕사진이 아버지를 도와 屬郡인 深州를 순행¹⁹⁾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왕사진은 술자리에서 심주 태수의 부하 이생을

17) 死生之報, 固有影響. 至於刀折, 殺亦不異. 諒明神不欺矣!(김장환·이민숙 외, 같은 책, 748쪽.)

18) 왕사진에 관한 내용은 《舊唐書》 卷142 <王武俊列傳> 참조.(앞의 책, 3876-3877쪽.)

19) 《舊唐書》에는 아버지인 왕무준이 죽고 나서 심주 등의 여러 지역을 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武俊卒, ……充成德軍節度·恒·冀·深·趙·德·棣等州觀察等使, 앞의 책, 3877쪽.)

보고 매우 불쾌해한다.

이생을 부르자 그는 종종걸음으로 들어와 절을 올렸다. 그런데 왕사진은 그를 보더니 크게 노여워하는 기색을 띠었다. 이미 자리에 앉으라고 했기에 이생은 더욱 공손한 몸가짐을 보였으나, 왕사진은 더욱 더 불쾌해져 눈을 부릅뜨고 소매를 걷어 올리는가 하면 방금 전의 기쁜 모습은 삼시간에 사라졌다. …… 이생은 무안해서 손에 땀이 나서 술잔도 잡지 못했다. 그의 이런 모습에 좌중은 모두 깜짝 놀랐다.²⁰⁾

왕사진은 이생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수하들에게 이생을 포박하여 감옥에 가두라고 명한다. 왕사진을 환영하는 술자리를 마련했던 태수는 영문을 몰라 당황한 채로 감옥에 있는 이생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묻는다. 그러자 이생은 27년 전 자신이 무죄한으로 사람들을 약탈하고 다닐 때 어느 한 소년의 재물을 빼앗고 절벽 아래로 밀어 죽게 한 적이 있는데, 술자리에서 왕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바로 그 소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 이야기에서 윤희·환생의 내막을 알고 있는 존재는 바로 악업을 행한 이생 자신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생은 다음날 참수를 당한다. 왕사진은 나중에 태수에게 이생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이생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단지 그를 한번 보자 분연히 내 마음이 격동되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소. 이제 그를 죽였지만 나도 그렇게 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니 그대는 이 일에 대해 다시 말하지 마시오.²¹⁾

왕사진이 스스로도 이생을 죽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은 전생의

20) 於是召李生入，趨拜。士真目之，色甚怒，既而命坐，貌益恭，士真愈不悅。瞻顧攘腕，無向時之歡矣。……生覩然而汗，不能持盃，一坐皆愕。(김장환·이민숙 외, 같은 책, 752쪽.)

21) 李生亦無罪，但吾一見之，遂忿然激吾心，已有戮之之意。今既殺之，吾亦不知其所以然也，君無復言。(같은 책, 753쪽.)

악업이 그대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응보의 주제를 보여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막연한 증오에 대해 숙명론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어쩌면 인과응보적 사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고금을 막론하고 막연히 불편하고 싫은 관계 혹은 괜히 좋거나 잘해 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환생복수서사의 허구적 진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존 인물이며,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윤회와 인과응보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보이는 주인공들의 행적은 극히 단편적이어서 무미건조하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의 행적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만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평광기》에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는 正史의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이 흥미진진하고 허구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양나라 무제가 바둑을 좋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²²⁾ 합두사라는 법사는 실존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런데도 《태평광기》 〈합두사〉에서는 전생담을 매개로 양나라 무제와 합두사 두 사람의 관계를 맺어 놓았다. 또 그로 인해 인간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가 그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오랜 緣起의 결과라는 한편의 드라마로 펼쳐진다. 비록 한낱 미물인 지렁이를 죽일지라도 업보로 돌아온다는 합두사의 이야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살생에 대한 금기를 되새기게 한다.

〈당소〉의 경우 황제의 講武 행사에서 저지른 실수 탓에 당소가 참수까

22) (陳慶之)幼而隨從高祖。高祖性好棋，每從夜達旦不輟，等輩皆倦寐，惟慶之不寢，聞呼卽至，甚見親賞。(《梁書》卷32) 漚弈棋入第六品，常與朱異，韋黯于御坐校棋比勢，復局不差一道。(《南史》卷25)。

지 당한 사건 역시 인구에 회자될 만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참수를 당할 정도의 큰 실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현종이 당소의 참수를 집행한 이막의 관직을 박탈하고 종신토록 등용하지 않았다는 정사의 기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현종의 후회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로 흥미롭긴 하지만 무미건조하고 단조롭다. 하지만 여기에 윤희와 환생이라는 모티프를 더해 당소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결과 역시 전생에 저지른 살생이라는 업보를 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이야기대로라면 현종의 당소에 대한 참수는 전제 군주의 신경질적인 횡포가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막을 갖춘 이야기로 전환된다.

〈이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인공인 왕사진은 정사에 기록된 인물이다. 물론 《태평광기》에 기록된 환생담은 정사의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생의 악업은 살해당한 소년의 환생인 왕사진에 의해 업보를 받게 된다. 몇 번째의 전생인지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전제된 여느 환생담과 달리 살인의 악업을 지은 이생이 현세에서 그 報應을 받은 것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증오감을 느끼고 화를 내는 왕사진과, 또 그 앞에서 찢찢매는 이생의 모습으로 묘사된 인과응보의 규율은 왕사진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인 심주 지역이 실제 왕사진이 순행을 나갔던 곳이라는 사실로 인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게 한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명도의 차이는 있지만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행적은 모두 정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작가의 창작성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플롯에 있다. 역사가에게는 실존 인물이 남긴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이 일어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름’으로 대변되는 개별적 사실은 기껏해야 역사적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플롯’으로 구현

되는 소설은 보편적 진실을 말한다. 23)

앞에서 논의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인상적인 까닭은 주인공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존재는 이야기의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좀 더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환상성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것은 이야기 속에서 역사와 허구가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중국에서 정통서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실록’으로, 소설은 ‘보완적인 역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서사 전통에서 비공식적인 역사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던 소설에 대한 재인식은 육조시대 ‘지괴’라는 작품들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지괴는 불완전하고 비공식적이며 보충적인 역사 혹은 역사의 재료로서 평가됐다. 24)

전통시기 중국에서 소설은 정사의 정통적 지위에 비하면 하찮은 장르에 불과했다. 소설의 잡다한 허구성은 오랜 기간 소설을 주류 문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와 소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은 전통시기 중국소설이 ‘史官之流’²⁵⁾에 들어간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중국에서 소설이 역사와 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리지엔궈(李劍國) 교수는, 殷商 시기 이전에 문자가 없이 전해지던 신화나 전설 등이 역사화 혹은 半역사화 된 채 《尚書》나 《左傳》 등에 기재되었고, 또 상제나 귀신 등과 같은 관념의 영향으로 종교나 미신적인 활동이 사회생활 전반에 침투함으로써 역사 기록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지괴 이야기들이 상류층과 민간, 그리고 사관에 의해 유전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26)

23) 김기봉 지음, 《역사들이 속삭인다》, 서울: 프로네시스, 2009, 24-25쪽.

24) 앞의 책, 28-29쪽.

25) 傳記·小說, 外暨方言·地理·職官·氏族, 皆出于史官之流也. 《新唐書·藝文志序》

26)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05년, 72-73쪽 참조.

따라서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특히 지괴 전기류 소설에 역사와 허구가 뒤섞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판타지 소설 작품에나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이 정사 속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거나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허구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결국 양자 사이의 간극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역사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서사가 과거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 반면 허구는 그 서술상 절박한 요구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들어낸다.²⁸⁾ 그런 허구로서의 소설은 역사서사에 의해 정통으로 간주되었던 현실의 질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의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⁹⁾

윤회·환생을 모티프로 한 많은 이야기들은 전생의 업이 현생에까지 이어지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선악의 결과에 따라 행과 불행이 있게 된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들은 비단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인과응보의 관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인과응보라는 관념은 불교적 세계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이미 앞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태평광기》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전생에 맺은 원한과 또 그로 말미암은 현생에서의 보응은 대개 복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효나 충의 명분을 따르는 복수에 대해 관대했던 중국 고대의 문화 속에서도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는 환영받지 못했다. 특히

27) 구체적인 예로 《後漢書·蔡邕傳》에서는 連里木의 출현 등을 통하여 채옹의 지극한 효심을 표현하고 있다.(邕性篤孝, 母常滯病三年, 邕自非寒暑節變, 未嘗解襟帶, 不寢寐者七旬. 母卒, 廬于冢側, 動靜以禮. 有菟馴擾其室傍, 又木生連理, 遠近奇之, 多往觀焉.)

28) 루샤오핑 저,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서울: 길, 2001, 187쪽.

29) 김기봉, 같은 책, 29쪽.

사소한 모욕이나 개인적 원한 때문에 복수하는 것은 소인배의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사사로운 복수는 자연스레 비현실적인 소설에서 대거 출현할 수밖에 없었고, 복수하는 자는 해를 입은 자의 원혼, 즉 귀신이거나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또 다른 형체여야만 했다.³⁰⁾

그렇게 죽은 원혼이나 혹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 상대에게 복수를 당하는 자들은 은혜를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리거나,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거나, 사람과 동물을 학대하거나, 남의 처자식을 빼앗는 등의 각종 원인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수를 당하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자들이다. 하지만 현생에서의 억울함을 죽어서라도 풀고자 하는 주체는 사회적으로 지위나 권력, 재산 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동물들이 대부분이다.

현생에서 원한을 풀 수 없었던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기제가 바로 저승에서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저승에서만큼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모든 중생들이 완전히 평등하며 인간세상의 귀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³¹⁾ 이것이야말로 부조리한 사회적 질서와 관습의 굴레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또한 환생을 모티프로 한 복수는 여타의 복수와는 조금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전생의 원한으로 환생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전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³²⁾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은 현생에 나타나는 일들이 전생의 원한에서 비롯된 업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

30) 리평페이, 같은 논문, 363쪽.

31) 世間卽有貴賤, 冥司一般也. 《태평광기》 권124 〈王簡易〉, 같은 책, 717쪽.

32)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전생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한다. 물론 앞에서 예를 들었던 당소는 다소 예외적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전생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생의 업보를 치르는 것이다.

이는 인과율이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가항력적인 법칙이 인간의 삶에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초현실적인 어떤 규율에 의해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그것은 환생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퍽박을 견디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세계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불교의 인과응보설이나 윤회설이 일종의 희망적인 운명론일 수 있었던 까닭은 운명이 자기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고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사건은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더 나아가 業說은 운명의 동력이 어떠한 초월자가 아닌 인간 자신의 행위라고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어떠한 일을 행한 행위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그 행위에 의해 업보를 받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³³⁾

불교는 인간적 존재에 관한 종교이다. 인간적 존재는 그 행위를 본질로 한다. 행위가 행위인 까닭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지에 있다. 의지적 행위에 문제를 집중시키고 있다. 의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³⁴⁾

이와 같은 불교의 인과응보는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의지를 최상위에 놓음으로써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법보다 더 강한 도덕률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즉 사후의 저승이나 환생이라는 허구의 세계가 보여주는 엄중한 규율을 현실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의 잣대로 여길 수 있다.

33) 김영진, 앞의 논문, 19-20쪽.

34) 佐左木現順, 《業と運命》, 東京: 清水弘文堂, 1982, 32쪽. (김영진, 앞의 논문 37쪽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환생복수를 테마로 하는 이야기 속의 전생의 일들은 잡스럽고 무질서하며 불합리하다. 그러나 전생에서 지은 업보는 인과율에 의해서 다음 생에서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플롯이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설의 리얼리티이다. 소설의 리얼리티는 결코 현실에서 말하는 사실(fact)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작품 안에서의 진실성이 곧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작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동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의 허구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점이 바로 허구가 거짓이면서 진실된 거짓, 즉 가공의 진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³⁵⁾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설이 보여주는 허구적 진실로 인해 인과율은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러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 대한 상상은 현실 속에서의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IV. 나오는 말

역사서사와 허구서사는 어느 시대에도 공존하며 인간의 삶을 담론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둘 중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식하여 생산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구서사가 보여주는 ‘가상현실’은 꿈이란 형태로 인간이 불충분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야 했던 태초부터 있었던 神異, 또는 상상의 세계다.³⁶⁾

환생복수 이야기들의 플롯은 전생의 업보로 인한 환생과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공통된 플롯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존 인물의 ‘실제 일

35) 홍문표, 《소설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조문학사(e-book), 2018.

36) 김기봉, 같은 책, 30-31쪽 참조.

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서사와 다르게 그 인물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을 묘사한 허구서사는, 그 기이한 가상현실 속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로,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로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규율이 바로 그것이다.

인과응보의 관념은 불교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은 소설이라는 허구서사를 통해 대다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리로 전환되어 수용된다. 그것은 어떤 법률 조항이나 경전의 가르침보다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행위의 선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윤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인생의 진실로 자리 잡게 된다.

<참고문헌>

- 강종임, 〈복수의 당위성과 가려진 고뇌-효에 바탕한 복수서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81집, 2019년.
- 김기봉 지음, 《역사들이 속삭인다》, 서울: 프로네시스, 2009.
- 김낙철, 〈唐 傳奇에 나타난 사후세계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44집, 2019.
- 김영진, 〈중국 위진불교의 '운명'이해와 인과론〉, 《불교학연구》 제34호, 2013.
- 김영진, 〈《강철비》《신과함께-죄와벌》《1987》 세 편의 한국영화에 대하여-상품, 예술, 계몽의 자리〉, 《씨네21》, 2018.
- 김장환·이민숙 외, 《태평광기》, 서울: 학고방, 2001.
- 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2008.
- 루샤오핑 저,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서울:길, 2001.
- 리평페이, 〈고대 중국의 '복수'관념과 그 문학적 표현〉, 《민족문화연구》

65호, 2014.

파드마 삼바바, 장순용 옮김, 《티베트사자의 서》, 파주: 김영사, 2014.

홍문표, 《소설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조문학사(교보문고 e-book), 2018.

李劍國, 《唐五代志怪傳奇敘錄》,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3.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05.

[唐] 李延壽 撰, 《南史》, 北京: 中華書局, 1992.

[後晉] 劉昫 等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2.

[宋]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2.

[唐] 姚思廉 撰, 《梁書》, 北京: 中華書局, 1992.

<미국과학자, 인과응보의 비밀을 발견>, [https://kr.theepochtimes.com / 2015.11.20.]

<Abstract>

Historical and fictional narratives have coexisted and told stories of human lives throughout all ages. Therefore, the issue is not about having one of them replace the other, but about recognizing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having productive talks, to have them produce a synergy effect. “Virtual reality” shown in fictional narratives is an extremely different and amazing world or an imaginary world, which has been with humans in the form of dreams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hen humans lived in an inadequate and unstable reality.

Rebirth and revenge stories have a common plot in which a character lives a seemingly predestined life through rebirth resulting from the karma of the former life and the law of causality. In particular, unlike historical narratives recording “what happened in reality” to historical figures, fictional narratives recording “what might have happened” to them

use bizarre virtual reality to desperately suggest alternatives regarding the reality where justice is not protected. That is, they suggest the principle of retribution: goods deeds will be rewarded with good results and bad deeds with bad results. Although the concept of retribution originates from the religious doctrines of Buddhism, it is already accepted as a general truth by a majority of people through novels, a type of fictional narratives. The concept of retribution affects people more practically and strongly than any provision of law codes or any ethics in scriptures. It has become an unwritten law that bad deeds will be paid for in the next life if not made up for in this life. This can be said to be the ethics of novels and a fictional truth.

Key Words : 환생(Rebirth), 윤회(Metempsychosis), 인과율(Principle of Cause and Effect), 복수(Revenge), 소설의 윤리(Ethics of Novels), 허구적 진실(Fictional Truth)